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소비재 교역, 새 판을 짜야 한다!
- 한국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과 과제 -

목 차

- 소비재 교역, 새 판을 짜야 한다!
- 한국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과 과제

Executive Summary	i
1.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비중 축소	1
2. 한국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	2
3.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요 약>

■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비중 축소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1.9조 달러에서 2014년 약 6.3조 달러로 약 3.3배 커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소비재 교역 규모도 278.5억 달러에서 705.8억 달러로 약 2.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1995년 1.5%에서 2014년 1.1%로 축소되었다. 이하 한국의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

한국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 변화, 한국의 소비재 교역 현황,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교역의 위상 및 기여도, 한국의 지역 간 및 상품별 교역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지역 간 및 소비재 품목별 교역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은 전체 소비재 교역의 약 95%를 차지하는 100대 교역 상대국 기준이다.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 세계 소비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이 크게 둔화되면서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순위가 빠르게 하락하였다. 세계 소비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1995년 2.1%에서 2014년에는 0.8%로 하락하면서 對 세계 소비재 수출 순위도 동기간 14위에서 29위로 급락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순위도 2000년 15위에서 2014년 21위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세계 소비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은 1995년 0.9%에서 1.5%로, 세계 순위는 19위에서 16위로 상승하였다.

(소비재 교역 현황) 한국의 경우, 소비재 수입이 소비재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면서 무역수지도 크게 악화되었다. 한국의 소비재 교역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1%대 중반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0년 이후 10%를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소비재의 수출보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소비재 교역 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의 소비재 수출은 1995년 196.8억 달러에서 2014년 244.2억 달러로 연평균 1.2% 증가한데 그쳤으나, 소비재 수입은 동기간 81.6억 달러에서 461.6억 달러로 연평균 10.1%씩 증가하였다. 이 결과, 한국의 소비재 교역 수지는 1995년 11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이래 지속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217.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비재의 국내 교역 증가 기여도)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대한 소비재 수출의 기여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총교역 증가분에 대한 소비재 교역 증가분의 기여율은 1995년 대비 2000년 2.5%에서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9.1%로 6.6%p 상승하였다. 다만, 이는 소비재 수출 증가분의 기여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소비재 수입 증가분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0년 대비 2014년 한국의 총수입 증가분에 대한 소비재 수입 증가분의 기여율은 14.7%인데 반해 동기간 한국의 총수출 증가분에 대한 소비재 수출 증가분의 기여율은 3.9%로 한국의 총

수입 증가분에 대한 소비재 수입 증가분의 기여율이 약 10.8%p 정도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소비재 교역 현황) 對 아시아 소비재 교역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비재 교역 수지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의 소비재 교역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약진 중으로 2005년까지 한국의 소비재 10대 교역국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홍콩 정도였으나, 2014년에는 중국(1위), 일본(3위), 베트남(4위), 홍콩(9위), 인도네시아(10위)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비중은 1995년 46.5%에서 2014년에는 약 60% 수준으로 상승했다. 한편, 지역별 소비재 교역 수지를 살펴보면 對 아시아 및 對 유럽 소비재 교역 수지 적자 규모가 2005년 각각 39.0억 달러, 1.2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동 110.8억 달러, 80.0억 달러로 각각 약 2.8배, 약 66.7배가 확대되었다. 북미와 남미 지역에 대한 소비재 교역에 있어서도 한국은 1995년 각각 30.0억 달러, 7.9억 달러 흑자에서 2014년에는 각각 28.7억 달러, 5.5억 달러씩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 전 지역에서 소비재 교역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상품별 소비재 교역) 상품별로는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전 소비재 상품에 걸쳐 교역 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상품별 소비재 교역 수지를 살펴보면 내구재를 제외한 전 소비재에 걸쳐 교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준내구재 교역 수지는 1995년 68.5억 달러 정도 흑자였지만, 2014년에는 109.5억 달러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내구재도 흑자 규모가 2005년 47.2억 달러에서 2014년 8.6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다.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對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대규모 교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이처럼 국내 소비재 전반의 교역 실적 악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 경쟁력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 뿐 아니라 국내 산업 공동화의 진전, 부진한 소비재 관련 혁신 및 혁신 결과의 시장화 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시사점

향후에도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되는 한편 글로벌 공급 및 가치 사슬 변화로 국내 소비재 교역 수지 악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소비재 전반의 교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통해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만, 정책 대상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소비재 부문도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 대응이라는 큰 틀에서의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농림어업 및 식품가공 분야 경쟁력 제고, ICT 및 바이오 기술 활용도제고, 민간 기업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음식료품(가공품 포함) 관련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 현상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융합형 소비재 개발과 시장화 및 수출 상품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시장화 가능 상품들에 대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에 앞서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 차별화도 필요하다. **넷째**, 전 세계적인 한류 붐이라는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 강화는 물론 유통채널 확보 등을 위한 현지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비중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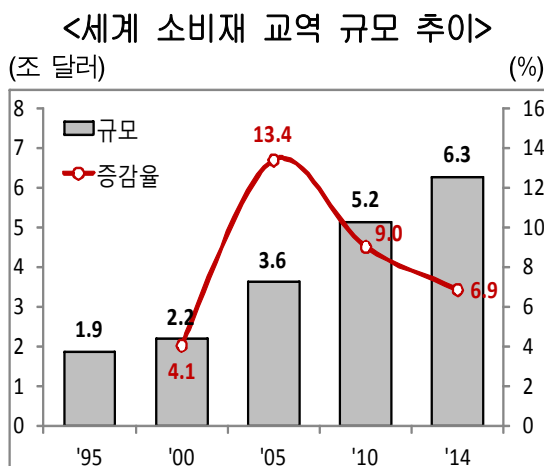
○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이 축소

-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규모는 지속 확대)
 -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 증가율은 2000~2005년 사이에 연평균 13.4%를 기록했으나, 2010~2014년에는 연평균 6.9%로 둔화
 - 다만, 세계 소비재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1.9조 달러에서 2014년 약 6.3조 달러로 약 3.3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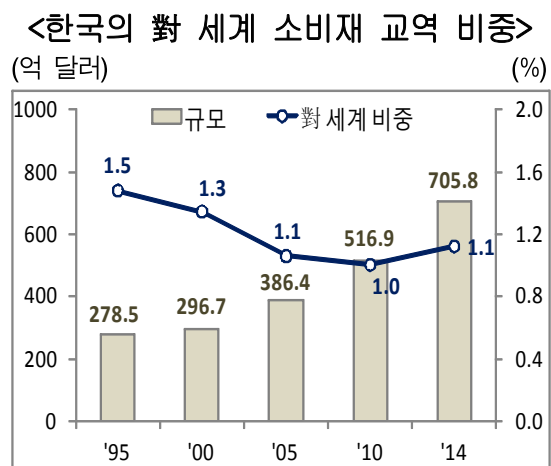
-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비중 축소

- 한국의 소비재 교역 규모는 1995년 약 278.5억 달러에서 2015년 약 705.8억 달러로 약 2.5배 증가하였음
- 반면에 한국이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5%에서 2014년 1.1%로 축소되었음

- 본고에서는 한국의 소비재 교역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소비재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1) 상품별 세계 교역은 UN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구분에 따라 분류. BEC코드는 1960년대말 개발됐으며 국제교역상품을 사용목적(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별로 구분하며 SITC 3단위와 연계됨.

2. 한국 소비재 교역의 문제점

2-1. 주요 분석 내용

○ 분석 기간

- 1995~2014년까지의 19년간을 분석 기간으로 함
 - 단, 분석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4개 기간(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4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데이터 : UN Comtrade²⁾

○ 분석 내용

- 한국의 소비재 교역 현황 및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 변화
-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교역의 위상 및 기여도
- 한국의 소비재 교역 구조 변화
 - 지역 간 소비재 교역 및 소비재 품목별(6개 품목) 교역 현황을 통해 한국의 소비재 교역 구조 변화를 알아봄

<분석 기간, 데이터 및 주요 분석 내용>

분석 기간	· 1995~2014년(1995년부터 매 5년 간을 분석대상으로 함)
데이터 출처	· UN Comtrade
분석 대상 소비재 코드	· 112(가정용 음식료품), 122(가정용 가공음식료품), 522(비산업용 운송기기 등), 61(내구재), 62(준내구재), 63(비내구재)
주요 분석 내용	·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 변화 · 한국의 소비재 교역 현황 ·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소비재 교역의 기여도 · 한국의 소비재 교역 구조 변화(지역 간, 소비재 품목별 교역 현황)

주 1) 지역 간 및 상품별 교역 분석은 2014년 기준 100대 소비재 교역국(전체의 약 95%)이 대상.
2) 상품 코드는 최종 소비에 따른 경제 단위별 기준인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임.

2) UN Comtrade의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이부형조호정, '세계 10대 교역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16-12호, 현안과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6년 4월 6일과의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함임.

2-2. 주요 분석 결과

○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수출 위상 급락

- 對 세계 소비재 수입 비중 상승 속 수출 비중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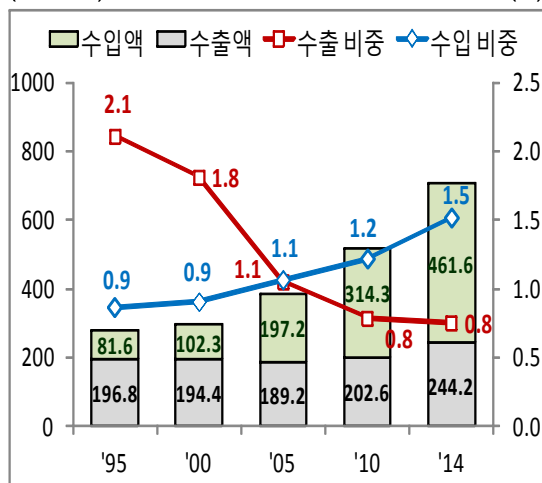
- 세계 소비재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1995년 2.1%에서 2014년 0.8%로 하락
- 이와는 반대로 세계 소비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1995년 0.9%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014년에는 1.5%로 확대

- 세계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 약화

- 한국의 세계 소비재 총수입 순위는 2005년 20위에서 2014년 16위로 상승
- 반면, 1995년 14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세계 소비재 총수출 순위는 이후 지속 하락하면서 2014년에는 29위로 밀려남
- 이처럼 세계 소비재 총수입 순위가 상승하고 동 총수출 순위가 하락하면서, 2000년 15위까지 상승했던 전체 소비재 교역 순위는 2005년 이후 21위 수준으로 하락한 채 개선되고 있지 않음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수출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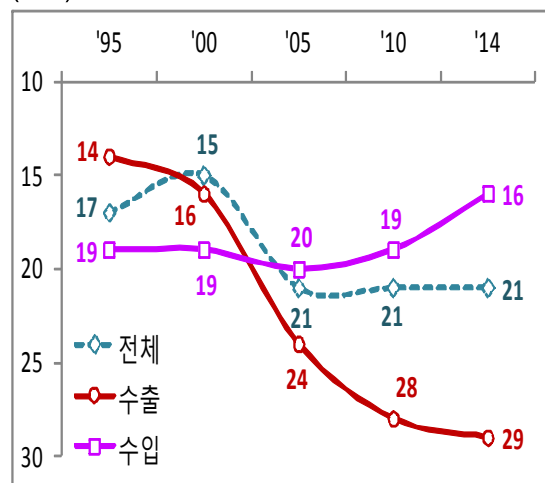
(억 달러)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의 對 세계 소비재 교역 순위>

(순위)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 (소비재 교역 현황) 소비재 교역 수지 적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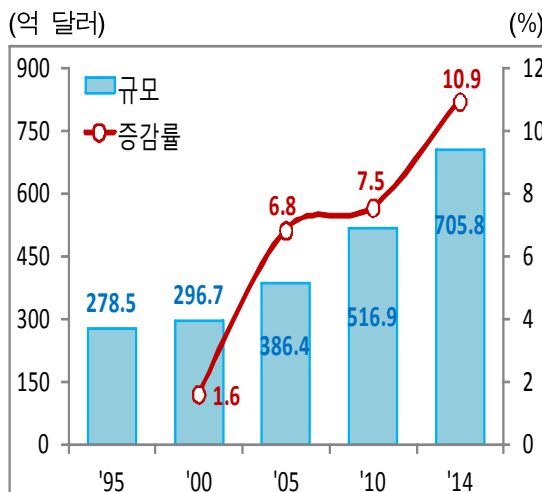
- 확대되고 있는 소비재 교역 규모

- 한국의 소비재 교역 규모 증가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연평균 1.6%에 그쳤으나, 이후 빨라지면서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동 10.9%로 가속
- 이에 따라 전체 소비재 교역 규모는 1995년 278.5억 달러에서 2014년 705.8억 달러로 약 2.5배 수준으로 확대

- 빠른 수입 증가로 대규모 소비재 교역 적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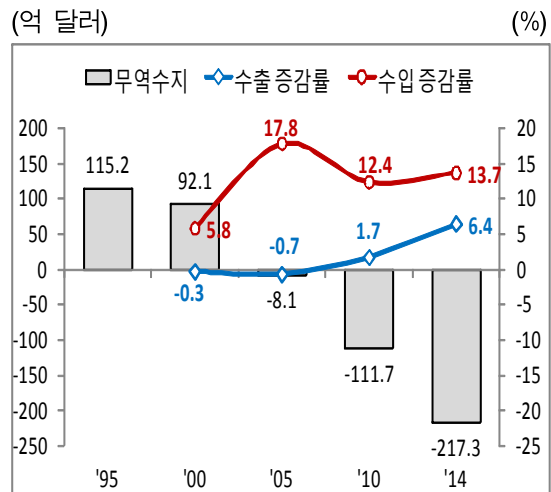
- 한국의 소비재 수출은 1995년 196.8억 달러에서 2014년 244.2억 달러로 연평균 1.2% 증가한데 그쳤으나, 동 수입은 동기간 81.6억 달러에서 461.6억 달러로 연평균 10.1%의 증가세를 보임
- 특히, 2005년 이후 소비재 수출 증가율과 수입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이나, 2011~2014년 연평균 수출 6.4%, 동 수입 13.7%로 수입이 수출에 비해 7.3%p 빠르게 증가
- 이 결과, 한국의 소비재 교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2014년에는 217.3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한국의 소비재 교역 규모와 증감률>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감률임.

<한국의 소비재 교역 수지>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각 구간별 연평균 증감률임.

○ (소비재의 국내 교역 증가 기여도) 소비재의 총수출 증가 기여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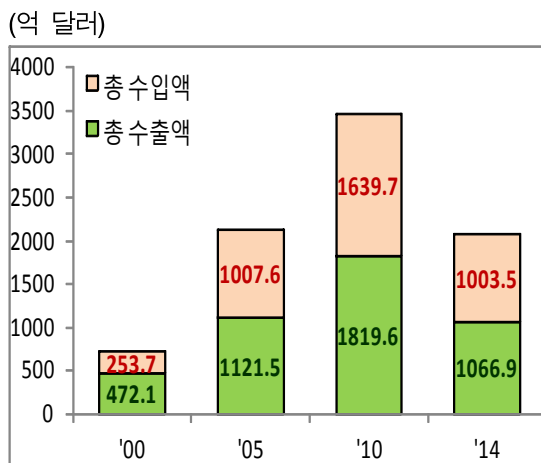
- 2010년 이후 국내 총 수출입 규모 증가세가 둔화

- 국내 총수출은 1995년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94.4억 달러, 이후 2005년까지 동 224.3억 달러, 이후 2010년까지 동 363.9억 달러로 증가세가 확대되다, 2014년까지 동 266.7억 달러로 증가세가 둔화
- 동기간 총수입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50.7억 달러, 201.5억 달러 327.9억 달러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이후 2014년까지는 동 250.9억 달러로 축소

- 소비재는 수입을 중심으로 교역 규모 증가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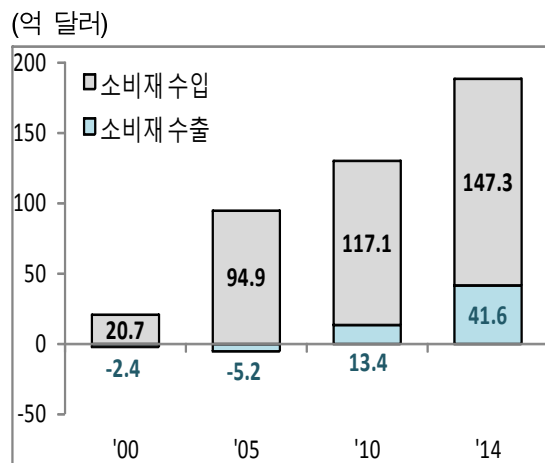
- 국내 소비재 수출은 1995년 대비 2000년과 2000년 대비 2005년에 각각 2.4억 달러, 5.2억 달러 감소하였으나, 2005년 대비 2010년에는 13.4억 달러,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41.6억 달러가 증가하였음
- 국내 소비재 수입은 1995년 대비 2000년 20.7억 달러, 2000년 대비 2005년 94.9억 달러, 2010년 대비 2005년 117.1억 달러, 2010년 대비 2014년 147.3억 달러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음
- 한편, 2010년 대비 2014년 소비재 수출입 증가 규모를 비교해보면 수입 증가 규모가 수출 증가 규모의 약 3.5배 수준에 달함

<한국의 총 수출입 증가 규모 추이>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00년은 1995년, 2005년은 2000년, 2010년은 2005년, 2014년은 2010년 대비 증감 규모임.

<한국의 소비재 수출입 증감 추이>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00년은 1995년, 2005년은 2000년, 2010년은 2005년, 2014년은 2010년 대비 증감 규모임.

- 상대적으로 미약한 소비재의 총수출 기여도

- 국내 총수출 증가에 대한 소비재 수출의 기여율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2010년 대비 2014년 3.9%에 불과한 수준
- 반면에 국내 총수입 증가에 대한 소비재 수입의 기여율은 1995년 대비 2000년 8.2%에서 2010년 대비 2014년에는 14.7% 수준까지 상승
- 이로 인해 국내 총교역 증가에 대한 소비재 교역의 기여율이 2010년 대비 2014년에 9.1%로 급등

<한국의 총교역 증가에 대한 소비재 교역의 기여율>

구분	'95년 대비 '00년(%)	'00년 대비 '05년(%)	'05년 대비 '10년(%)	'10년 대비 '14년(%)
총수출 증가 규모 대비 소비재 수출 증가 규모	-0.5	-0.5	0.7	3.9
총수입 증가 규모 대비 소비재 수입 증가 규모	8.2	9.4	7.1	14.7
총교역 증가 규모 대비 소비재 교역 증가 규모	2.5	4.2	3.8	9.1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기여율=한국의 소비재 교역(전체, 수출입) 증가 규모/한국의 총교역(전체, 수출입) 증가 규모*100.

2) 증가 규모는 1995년 대비 2000년, 2000년 대비 2005년, 2005년 대비 2010년, 2010년 대비 2014년 값임.

○ (지역별 소비재 교역 변화) 對 아시아 소비재 교역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비재 교역 수지 악화 진행

- 한국과의 소비재 교역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이 약진 중

- 2005년까지 한국의 소비재 10대 교역국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 일본, 홍콩 정도였으나, 2014년에는 중국(1위), 일본(3위), 베트남(4위), 홍콩(9위), 인도네시아(10위)로 확대
- 그 결과, 한국의 소비재 교역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비중은 1995년 46.5%에서 2014년에는 약 60% 수준으로 상승

-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비재 교역 수지 악화가 급진전

- 對 아시아 및 對 유럽 소비재 교역 수지 적자 규모는 2005년 각각 39.0억 달러, 1.2억 달러에서 2014년에 동 110.8억 달러, 80.0억 달러로 각각 약 2.8배, 약 66.7배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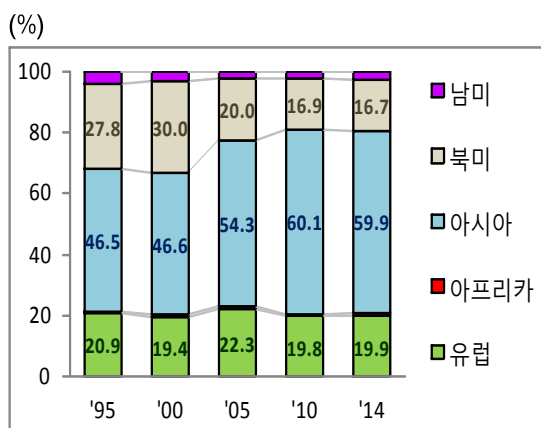
- 특히, 對 아시아 소비재 교역 수지 적자의 최대 원인은 중국(2014년 97.9억 달러 적자)을 비롯한 베트남(동 29.7억 달러), 인도네시아(동 8.1억 달러), 태국(동 7.3억 달러)에 대한 대규모 적자 때문임
- 對 북미 및 對 남미 소비재 교역 수지 적자 규모도 2010년 각각 8.2억 달러, 2.3억 달러에서 2014년 28.7억 달러, 5.5억 달러로 각각 약 3.5배, 약 2.4배 수준으로 상승

<한국의 10대 소비재 교역국 변화>

순위	1995년		2005년		2014년	
	국가	규모 (백만 달러)	국가	규모 (백만 달러)	국가	규모 (백만 달러)
1	미국	6,977.5	중국	8,166.5	중국	17,279.1
2	일본	6,813.5	미국	6,809.9	미국	10,540.7
3	중국	1,778.5	일본	5,245.7	일본	5,707.8
4	러시아	1,049.5	호주	1,375.7	베트남	5,226.7
5	독일	899.9	독일	1,259.5	이탈리아	2,176.3
6	홍콩	862.3	영국	1,031.0	독일	1,855.0
7	이탈리아	682.7	이탈리아	991.9	프랑스	1,833.3
8	영국	655.1	프랑스	974.4	호주	1,714.4
9	프랑스	503.2	홍콩	704.9	홍콩	1,607.1
10	캐나다	428.1	러시아	665.0	인도네시아	1,598.1

자료 : UN comtrade.

<한국의 지역별 소비재 교역 비중>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100대 소비재 교역 대상국 기준임.

<한국의 지역별 소비재 교역 수지>

구분	'95년	'00년	'05년	'10년	'14년
유럽	13.5	12.2	-1.2	-36.9	-80.0
아프리카	1.1	1.9	2.6	2.7	2.3
아시아	55.3	30.3	-39.0	-69.3	-110.8
북미	30.0	35.1	21.8	-8.2	-28.7
남미	7.9	5.9	1.5	-2.3	-5.5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100대 소비재 교역 대상국 기준임.

○ (상품별 소비재 교역) 준내구재(62)를 중심을 전 소비재 상품에 걸쳐 교역 수지 악화가 심화

- 전 소비재에 걸쳐 교역 수지 악화가 진행 중

- 상품별 소비재 교역 수지를 살펴보면 61(내구재)을 제외한 전 소비재에 걸쳐 교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거나, 적자 폭이 확대
- 특히, 61(내구재)도 2005년 47.2억 달러 흑자에서 2014년 8.6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이 크게 축소

- 62(준내구재) 교역 수지가 가장 크게 악화

- 62(준내구재) 교역 수지는 1995년 68.5억 달러 흑자에서 2005년 13.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적자 규모가 109.5억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의 상품별 소비재 교역 추이>

구분	연도	112	122	522	61	62	63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억 달러)
총 교역 규모	'95년	12.4	39.9	2.1	57.1	122.8	32.1
	'05년	22.3	66.8	2.8	100.8	114.5	58.2
	'14년	49.8	144.9	4.7	118.7	210.9	138.7
수출	'95년	7.4	18.3	1.6	46.8	95.7	17.3
	'05년	5.6	19.3	1.2	74.0	50.3	25.3
	'14년	7.4	41.7	0.5	63.7	50.7	58.4
수입	'95년	5.0	21.6	1.6	10.3	27.1	14.8
	'05년	16.7	47.6	1.2	26.8	64.2	33.0
	'14년	42.4	103.2	0.5	55.1	160.2	80.3
수지	'95년	2.4	-3.3	1.1	36.5	68.5	2.6
	'05년	-11.1	-28.3	-0.4	47.2	-13.9	-7.7
	'14년	-35.0	-61.4	-3.7	8.6	-109.5	-21.8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1) 112는 가정용 음식료품, 122는 가정용 가공음식료품, 522는 비산업용 운송기기 등, 61은 내구재, 62는 준내구재, 63은 비내구재임.

2) 100대 소비재 교역 대상국 기준임.

- 내구재와 준내구재의 對 아시아 국가 교역 수지 대규모 적자

- 61(내구재) 교역의 경우, 중국 17.3억 달러, 태국 2.7억 달러, 인도네시아 2.5억 달러, 베트남 1.9억 달러, 말레이시아 0.8억 달러 적자
- 62(준내구재)도 중국 63.0억 달러, 베트남 25.7억 달러, 인도네시아 5.5억 달러, 태국 1.2억 달러의 적자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내구재와 준내구재 대규모 교역 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음

- 가정용 음식료 관련 제품 교역에서도 주요국 대상 대규모 적자를 보임

- 112(가정용 음식료품)과 122(가정용 가공음식료품)의 경우, 중국, 미국, 호주 등 주요국에 대한 대규모 교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한국의 상품별 10대 소비재 적자국 추이(2014년 기준)>

구분	112(억 달러)		122(억 달러)		522(억 달러)	
	국명	규모	국명	규모	국명	규모
1	중국	-9.8	미국	-25.2	중국	-1.99
2	미국	-7.5	호주	-10.1	미국	-0.58
3	베트남	-4.9	중국	-4.9	일본	-0.46
4	필리핀	-3.9	독일	-3.9	독일	-0.4
5	칠레	-2.7	러시아	-2.6	태국	-0.16
6	러시아	-2.2	영국	-2.4	베트남	-0.14
7	태국	-1.7	뉴질랜드	-2.4	이탈리아	-0.10
8	노르웨이	-0.8	칠레	-2.3	영국	-0.08
9	인도	-0.6	프랑스	-2.2	호주	-0.04
10	뉴질랜드	-0.5	스페인	-2.0	캐나다	-0.03
구분	61(억 달러)		62(억 달러)		63(억 달러)	
	국명	규모	국명	규모	국명	규모
1	중국	-17.3	중국	-63.0	미국	-9.5
2	스위스	-6.0	베트남	-25.7	프랑스	-6.2
3	태국	-2.7	이탈리아	-12.5	독일	-5.9
4	인도네시아	-2.5	인도네시아	-5.5	이탈리아	-3.3
5	베트남	-1.9	프랑스	-4.3	영국	-3.1
6	아일랜드	-1.2	스웨덴	-2.5	아일랜드	-2.5
7	이탈리아	-1.2	독일	-1.4	스위스	-2.2
8	말레이시아	-0.8	태국	-1.2	스페인	-1.3
9	프랑스	-0.6	스페인	-0.9	중국	-1.0
10	독일	-0.4	덴마크	-0.8	스웨덴	-1.0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1) 112는 가정용 음식료품, 122는 가정용 가공음식료품, 522는 비산업용 운송기기 등, 61은 내구재, 62는 준내구재, 63은 비내구재임.

2) 100대 소비재 교역 대상국 기준임.

3. 시사점

- 한국의 소비재 교역은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역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전체 소비재 교역 수지는 물론 상품별로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지역 대상 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는 등 소비재 교역 수지가 지속 악화
 - 이처럼 국내 소비재 교역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 경쟁력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 뿐 아니라 국내 산업 공동화의 진전, 부진한 소비재 관련 혁신 및 혁신 결과의 시장화 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향후에도 국내 산업 공동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사슬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소비재 교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
 - 첫째, 소비재 전반의 교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통해 세계 소비재 교역 내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
 - 소비재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재 전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나, 대규모 소비재 교역 수지 악화를 고려할 때 소비재 교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
 -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개별 소비재 교역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국내 소비재 수출 및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을 선별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가장 큰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비내구재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내구재 부문에 대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내 산업 공동화 대응과 같은 큰 틀에서의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음식료품(가공품 포함) 관련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함

- ICT를 활용한 융복합형 첨단 농림어업 육성, 음식료품 관련 바이오 기술 및 관련 전문 인력 활용도 제고, 민간 기업의 농림어업에 대한 직접 참여 및 관련 가공·제조 부문 활성화 등을 통해 농림어업 및 식품가공 분야의 경쟁력 제고 필요
 - 한편, 안심·안전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고조되고 있는 중국 등 개도국들은 물론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에 대한 수요 대응형 상품 개발 및 수출 마케팅 강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수출 상품군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적극적으로 신속한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통해 상품·서비스 융합형 소비재 개발과 시장화 및 수출 상품화를 촉진시켜야 함
- 최근 음식료품(가공품 포함) 및 비내구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소비재들이 ICT와 융합되거나, 관련 서비스와 융합된 상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상품들의 경우 종종 적절한 규제가 없거나 비합리적인 규제로 시장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합리화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융합형 소비재의 개발과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국내에서는 규제 개선이 어렵거나 합리화가 불가능한 부문이더라도 해외에서는 시장화가 가능하다면, 이들 상품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 상품화하는 등 정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함
- 넷째, 전 세계적인 한류 붐이라는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마케팅 강화는 물론 유통 채널 확보 등을 위한 현지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한류의 확산은 현지 내 한국의 생활문화 확산은 물론 관련 상품 소비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소비재 수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일 뿐 아니라 상품 현지화 리스크도 크게 낮아져 수출 측면에서는 큰 기회 요인임
 - 이러한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공관이나 단체, 기업 등의 한국 생활문화 파급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수출 증대 효과로의 연계를 위한 현지 마케팅 강화는 물론 인터넷 쇼핑, 통신판매, 양판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의 조기 확보가 중요

이부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부록 1.> 한국의 10대 소비재 수출입국 변화

(단위: 백만 달러)

수출	1995년		2005년		2014년	
	국가	규모 (백만 달러)	국가	규모 (백만 달러)	국가	규모 (백만 달러)
1	일본	5,852.6	미국	4,470.3	미국	3,870.0
2	미국	4,851.1	일본	3,150.9	일본	3,839.0
3	러시아	845.9	중국	1,470.7	중국	3,742.6
4	홍콩	728.8	독일	790.6	홍콩	1,424.4
5	독일	630.2	UAE	636.5	베트남	1,129.3
6	중국	498.3	호주	603.8	UAE	1,104.0
7	캐나다	352.3	홍콩	535.8	러시아	613.7
8	영국	320.5	핀란드	515.8	호주	505.0
9	네덜란드	292.1	영국	429.8	태국	401.1
10	UAE	283.1	러시아	382.7	인도네시아	394.7

수입	1995년		2005년		2014년	
	국가	규모 (백만 달러)	국가	규모 (백만 달러)	국가	규모 (백만 달러)
1	미국	2,126.4	중국	6,694.8	중국	13,536.5
2	중국	1,280.2	미국	2,339.7	미국	6,670.7
3	일본	978.8	일본	2,094.8	베트남	4,097.4
4	이탈리아	472.7	호주	771.8	이탈리아	2,045.6
5	영국	334.6	이탈리아	702.9	일본	1,868.7
6	독일	269.7	프랑스	629.0	프랑스	1,587.9
7	프랑스	264.0	영국	601.2	독일	1,522.0
8	호주	213.7	독일	468.9	호주	1,209.4
9	러시아	203.7	베트남	377.2	인도네시아	1,203.4
10	태국	134.8	태국	355.8	태국	1,132.0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4년 교역 규모 기준.

<부록 2.> 한국의 상품별 10대 소비재 흑자국 변화

(단위: 억 달러)

구분	112(억 달러)		122(억 달러)		522(억 달러)	
	국명	규모	국명	규모	국명	규모
1	일본	2.670	일본	10.1	말레이시아	0.08
2	싱가포르	0.193	홍콩	2.3	스페인	0.04
3	네덜란드	0.065	에콰도르	0.3	호주	0.03
4	아이슬란드	0.025	카자흐스탄	0.2	이스라엘	0.03
5	영국	0.020	UAE	0.2	인도	0.02
6	세네갈	0.013	나이지리아	0.2	나이지리아	0.01
7	UAE	0.008	코트디부아르	0.2	터키	0.01
8	크로아티아	0.007	이스라엘	0.1	칠레	0.01
9	마카오	0.006	싱가포르	0.1	러시아	0.01
10	스페인	0.005	필리핀	0.1	브라질	0.01
구분	61(억 달러)		62(억 달러)		63(억 달러)	
	국명	규모	국명	규모	국명	규모
1	미국	12.7	일본	3.9	홍콩	5.2
2	UAE	6.9	홍콩	3.5	베트남	4.6
3	일본	2.8	미국	2.0	UAE	3.1
4	러시아	2.3	러시아	0.9	러시아	1.0
5	호주	2.3	UAE	0.8	일본	0.7
6	터키	2.0	싱가포르	0.5	호주	0.6
7	홍콩	1.8	호주	0.3	브라질	0.6
8	캐나다	1.2	브라질	0.2	인도네시아	0.4
9	영국	0.9	이집트	0.2	카자흐스탄	0.2
10	네덜란드	0.8	카자흐스탄	0.1	파키스탄	0.2

자료 : UN Comtrade, 현대경제연구원.

주 1) 2014년 교역 규모 기준.

2) 112는 가정용 음식료품, 122는 가정용 가공음식료품, 522는 비산업용 운송기기 등, 61은 내구재, 62는 준내구재, 63은 비내구재임.

3) 100대 소비재 교역 대상국 기준임.